

사회봉사단 뉴스레터



-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 발행처: 사회봉사단
- 발행인: 김상래 / 편집인: 김원곤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바게트도 먹고 헌 옷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체육대회와 천보축전이 열렸다. 이 기간동안 학생 자원 봉사단 (이하 오아시스)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헌 옷을 기부하는 ‘성큼~와서 옷 줘’ 라는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 행사는 단순히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옷을 전달하지는 취지를 뛰어 넘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큰 희망 (캄보디아어로 ‘성큼’) 을 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직접 만든 바게트 피자를 판매 하여 팔아 기부금을 모았으며, 또한 헌 옷 기부 운동을 진행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외국인 교수는 빵을 판매한 수익금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빵을 구입하기도 했다. 수익금은 모두 캄보디아에 전해지며, 기부받은 헌 옷들 또한 캄보디아의 깜뽕잠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오아시스 단원들은 “헌 옷들은 일상복이 아닌 아이들의 교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기부” 라고 말했다. 이 기간에 헌 옷을 기부했던 한 학생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닌, 교복으로 기부되는 옷이라 깨끗 이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했다. 내 옷이 어떤 과정으로 캄보디아까지 가는 지 궁금하다” 라며 호기심을 보 였다.

사회봉사단에서는 매 방학마다 해외 단기 봉사활동 대원을 모집하여 많은 학생들을 해외 각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이번 오아시스 활동은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외 봉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사랑 나눔 행사가 지속되어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유지은 학생기자(jessie_ey@nate.com)